광주·전남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서 가장 싸다

광주 평균 1억4000만원 특·광역시중 최저

전남 평균 1억1000만원 17개 시·도중 최저

광주·전남지역의 아파트값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싼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11월 3주차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639만628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매매가와 상위 10% 평균을 조사한 결과, 전남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1096만원으로,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3041만원에 달해 전남 아파트값의 5배를 넘어섰다.

광주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억4452만원으로, 광역시임에도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4위를 기록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북(1억4566만원)보다 아래였다. 광주보다 가격이 낮은 지역은 강원(1억3030만원), 경북(1억2212만원), 전남밖에 없었다. 광주와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은 평균 매매가가 1억5000만원 미만을 기록했다.

지역별 매매가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 평균가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순위

〈단위:만원〉

지역	전체평균	상위10%	지역	전체평균	상위10%
서울	53,041	136,170	제주	16,997	37,610
경기	29,047	64,199	충북	15,594	34,046
부산	23,344	50,680	충남	16,385	33,577
인천	23,061	50,451	전북	14,566	32,425
울산	20,438	43,466	광주	14,452	30,548
대전	21,331	42,780	강원	13,030	26,177
대구	19,442	41,359	경북	12,212	25,714
세종	21,054	40,789	전남	11,096	25,048
경남	18,617	38,917			

※11월 3주차 시세 기준 〈자료출처:부동산써브〉

전남은 2억5048만원으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데 반해 서울은 13억6170만원으로, 무려 11억112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광주 역시 3억548만원으로 전북(3억2425만원)보다 낮았으며 서울과 비교하면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는 수년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고, 고가의 대형 아파트 물량도 없어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10억원이 넘는 가구가 없었다.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 평균가는 서울에 이어 경기(6억4199만원), 부산(5억680만원), 인천(5억451만원)이 차지했다.

영남지역의 상위 10% 고가 아파트 평균가는 전국 상위권이었지만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은 큰 격차로 하위권에 속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카드사들 금융당국에 백기

내달부터 대출금리 인하

내달부터 카드 대출금리가 최대 2% 포인트 인하된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0.9% 포인트, 현금서비스는 0.6% 포인트 가량 낮아져 저신용·취약계층의 대출 부담이 전체적으로 2200억원 가량 줄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하고자 내년에 대출금리 모범규준 테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는 최근 대출금리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카드론을 평균 0.9% 포인트, 현금서비스를 0.6%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국내 모든 카드사가 이런 규모로 일제히 대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드론 연평균 금리는 15.5%, 현금서비스는 21.4%까지 내려가게 된다. 내달 1일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2013 광주 청년창업 박람회 28일 조선대 체육대학 1층 체육관 특설 전시장에서 열린 '2013 광주 청년창업 박람회'를 찾은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 내빈들이 가드레일용 소켓식 콘 제작 업체인 나요스틸 부스를 찾아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조선대를 비롯해 광주권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유망 중소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센터 가동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되면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등에 설치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문의(062-360-9136).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전주 탄소섬유 공장, 지역산업 발전 공로 대통령 표창

효성의 전주 탄소섬유 공장이 28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 지역산업진흥 유공대통령 표창 시상식에서 효성은 전주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탄소섬유 공장을 건립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윤혁 공장장이 회사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눈부신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신소재로, 초경량·초고강도 등 우수한 특성을 지녀 자동차·항공기 동체나 레저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독자기술로 개발했으며 지난 5월 연산 2000t 규모의 고성능 탄소섬유 공장을 전주에 세웠다.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 부사장 겸 산업자재 PG장은 "올해 4월 상업화를 시작한 효성이 향후 세계 톱 클래스의 탄소섬유 업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품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에 전북 대표 기업으로 참여, 전북 홍보관에 탄소섬유 전시 부스를 운영 중이다. /임동률기자 exian@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2045.77 (+16.96)	515.52 (+3.87)	2.99% (+0.02)	1061.50원 (+0.40)

고령화·저금리 시대 재정적 자유를 위해

'생애재무설계'를 시작하자

이승현
〈KDB생명 광주지역본부장〉

가계빚 무려 1,000조,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 노인 빈곤율 OECD회원국 중 압도적 1위, 2013년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으로 생애재무설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이다.

'생애재무설계'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동시에 놓고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소득의 합리적 관리와 적정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금융, 보장, 부동산, 연금, 의료비 등)을 축적, 증식, 환원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생애자금 수요의 추정과 설계는 내 삶의 전체를 총체적 관점으로 생각 해보는 데서 시작된다. 연애, 결혼, 내집 마련, 출산, 양육, 자녀결혼, 은퇴, 장례 등 인생의 연령대별 중요한 삶의 이벤트를 그려보고, 이벤트에 필요한 자금 수요예측을 해본다. 결혼자금 마련, 주택 마련, 자동차 마련, 자녀학자금, 은퇴자금 마련, 노후의료비 등 나이별 기간별로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필요 자금 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자금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서 재무설계 밑그림을 그린다.

필요자금 규모와 자금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목돈 마련 수단을 선택한다. 우선 목표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의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 지를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자산을 키우고 유지할 것인가를 정한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도, 저금리로 인해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도 어렵다면 투자를 통해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 펀드, 주식투자, 채권 변액보험 등 위험이 다소 따르더라도 수익이 높은 상품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나 해외투자 등 직간접 투자처로 다변화해야 고령화 -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불릴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 노후설계.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3층 연금보장(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기본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장 기간을 길게, 범위는 넓게, 금액은 크게 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자산의 축적과 증식에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며, 젊어서부터 시작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노년의 1차적 재무목표는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월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현금확보 즉 유동성이다. 종신연금이나 월 지급식 펀드, 개인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의 연금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모르는 투자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또 노년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다. 상속이나 증여를 합리적으로 설계 해놓지 않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상속된 재산은 가족관계의 불신과 파국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산을 특정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법적, 세무적 고려도 필요하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프리카 여행 중일 때라도 자산이 스스로 풍족하게 불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고령화 -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축적하고 증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게임의 룰과 방법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 일수록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고,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하루라도 빨리 생애재무설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방법을 모른다면 생애재무설계 전문가(FP)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